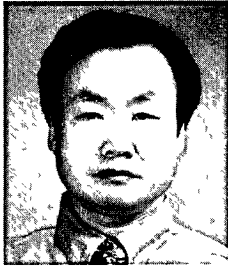


臨床日誌(友保藥)

李 學 範



〈1984년 2월 모일〉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하고 처음 배치받은 경북 군위군 우보면 소재지에 德仁堂 韓藥房을 개설한 때였다.

처음 얼마간 손님도 없고 해서 부족한 부분인 임상학 쪽에 의서를 꺼내놓고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점심때쯤 되어서 웬 할머니가 온몸은 물론 얼굴까지 천으로 감싼 20대 초반의 청년과 함께

약방문으로 들어섰다

그 할머니의 말은 아들이 대구 북성로 철공소에서 일하는데 이상하게 피부병이 생겨 온몸에 퍼져서 소문난 피부병원에 다 다녀보았고 그 유명한 칠곡 모병원 약까지 써보았어도 효험이 없이 점점 더해만가니 잘좀 보아달라고 애원어린 표정이다

청년이 가린 천과 양말을 벗고 팔을 건어올리고 몸통을 내놓았는데 온몸에 피부가 검어 시들어가고 진물이 형편없이 흘러내렸다. 어찌다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나는 한동안 궁리 끝에 防風通聖散에다 大風子 蟬退 白蘚皮를 가미해서 한제를 지어 주었다

그 청년을 보낸 뒤에도 계속 그 청년에 대한 연민감이 머리에 떠나지 않았고 그 당시 나는 매일 성당 새벽미사에 참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바쳤다.

〈2월 모일〉

아직까지 입춘절기이긴 하지만 싸늘한 바람이 문틈 사이사이에 들어와 기분나쁠 정도로 몸을 죄어오기에 석유곤로를 코앞에 바싹 붙이고 있노라니 저녁 때 퇴근할 땐 온몸이 찌뿌둥하면서 결리고 아프다.

막 퇴근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할머니가 약방문을 들어서서 모습에 희색이 만면하다.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약을 정성들여 다먹고 나니 그렇게도 많이 나오던 진물이 그치고 이제 피부가 꾸덕꾸덕해지면서 다 아물어 나왔어요 아들 녀석은 그만 먹어도 된

다고 하는데 부모인 제 마음은 어디 그렇습니까? 반제만 더 지어주세요”라고 했다.

나는 너무도 반가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약을 지어드렸다.

〈3월 모일〉

날씨가 제법 화창해지면서 꼭꼭 닫아걸었던 문을 뼈죽이 열어 놓게 되었다. 여분의 시간에 할 일이라고는 역시 의서를 읽는 일 뿐이다 여러가지 의서를 뒤적이고 있는데 60세 전후의 할머니가 들어와서 “선생님 팔이 영 말을 안들어요 이불을 깔려고 하면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약좀 지어주세요” 하는데 얼마나 지어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세척만 지어 달라고 한다 사실상 우보면 같은 빈촌사람들은 대다수 약을 짓는다면 두세첩, 많이 지어보아야 다섯첩 정도다. 이곳에서 영업을 계속 할려면 여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았다

나는 망설임 끝에 할머니 체질을 태음인으로 파악하고 行濕流氣湯을 지어 드렸는데 나는 적은 양을 먹고 최대의 효과를 볼려고 하니 위험한 일이긴 해도 어쩔수 없이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어 원방보다 川烏를 세배이상 더 넣었다

그런 후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어떻게 잘못되지나 않을까, 혹시나 잘못되어 간신히 쌓아올린 인고의 공로탑이 삼시에 허물어져 내리지나 않을까 하고서 걱정으로 거의 뜬 눈을 세우다시피 했다

〈3월 모일〉

평소보다 아침일찍 일어나서 출근차를 타고 약방에 도착하기가 바쁘게 할머니한테로 좀 어떻습니까 하고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그 약을 먹었더니 혀가 돌 돌 말리는 것 같더니만 아침에 이불을 게는데 나도 모르게 팔이 쑥 올라가지 않습니다. 효과를 많이 보아서 고맙군요”라고 한다.

나는 “휴우”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도 천만다행이긴 했지만 역시나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좀더 경험도 쌓고 연구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4월 모일〉

장날이다. 장날이랬자 조그만 우보면 시골장이라 오전중에 파장이다

처음 내가 개업할 때만 해도 개업잔치날 축하객들이 “약국장님 잘 오셨오. 이곳 지명이 우보(友保)라 벗을 보호한다는 의미라서 제 바닥 사람들은 성공한 예가 없는데 타지에서 영입해온 사람들은 모두들 성공하는 곳입니다. 약국장님도 예외는 아닐거요” 하던 말을 떠올리면서 물론 장날은 영업이 다소 낮기에 어떤 손님이 들어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다리를 저는 삼십 중반쯤의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유없이 다리를 절

게 되었는데 몇달이 지나도 잘 낫지 않으니 약 다섯첩만 지어달라고 한다. 내가 자세히 그 아주머니를 살펴본즉 소음인 체질로 판단되어 五積散에 牛膝 木果 五加皮와 附子를 가미해서 지어 주었다

〈4월 모일〉

우보면에서 개업한지도 그럭저럭해서 여러번의 장날을 맞이하는 날이다. 이젠 처음과는 달리 제법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 얼마간은 하루종일 손님 하나 없이 쪼그리고 앉아 책만 보다가 퇴근할 땐 남들이 저 작자는 매일 무엇하러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가 라고 빈정되는 것 같은 기분에 늘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을 피하다시피 출근 버스에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지난 날 다리저는 아주머니에게 五積散을 지어준 후 그것에 효과를 본 탓인지 그 아주머니가 이보란듯 장날마다 떠들고 다니니 저절로 선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날은 삼십 중반의 농부가 약방에 들어서서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동생놈이 미쳐서 날뛰는데 다방에 들어가서 제 마음대로 안된다고 기물과 테이블을 박살내놓고 닥치는 대로 난동을 부리는데 정신병자라고 해서 파출소에서라도 별 도리없이 방치하는 처지인데 갈 수록 병증이 심해서 한창 날떨 때는 장정 열 스물이 달려들어 도 못 당한답니다. 그래서 정신요양 수용소에 처넣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집 기둥에 밧줄로 묶어놓고 있습니다만 동생이 불쌍해서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좋은 처방이 없을까요”하고 걱정스럽게 털어 놓으면서 가정살림도 어렵고 하니 몇첩만 지어달라고 당부한다

나는 생각끝에 大承氣湯을 다섯첩 지었는데 보통 양에 곱을 하여 하루 1첩을 먹도록 해서 실상은 열첩이 되도록 지어주고 약값은 다섯첩값만 받았다. 어떻게든 낫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大承氣湯을 활용한 의도는 미쳐 날뛰는 환자의 기를 속 빼놓아 정신을 들게 하자는 것이었다.

〈4월 모일〉

이젠 완전한 몸이다. 따스한 햇살에 책을 들고 있노라면 졸음이 솔솔 오곤 하는데 지난 날 정신병자의 형이란 사람이 나타났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약을 다 먹고나니 녀석이 정신도 돌아오고 날뛰지도 않고 이젠 순순히 집안일도 거들고 정상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통하고 고맙습니다”하고 치하를 했다.

나도 놀랐다. 大承氣湯의 약기운이 하기시킴으로 날뛰는 기를 속 빼버려야겠다고 어

림짐작으로 약을 지어준 것이 이렇게 적중할 줄이야 참으로 천우신조 하느님의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5월 모일〉

초여름 기운이 완연하고 들녘에는 벼가 초록색 양탄자를 한없이 널려놓은 것 같고 각종 야생초들이 생기를 뽐내고 있었다.

오늘은 아주 사람 좋아보는 농부 한사람이 방문했는데 찰색을 해보니 푸석푸석하게 윤기없는 얼굴이 부어있었다 “선생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 신경통 때문인데, 이상하게 허리나 다리가 심하게 아파 일을 제대로 하지못할 지경일 땐, 신약방에 가서 약 몇첩 먹으면 그 당장에 괜찮고 해서 일하다가도 아프거나 하면 계속 복용했는데 한번은 다른 약국엘 갔더니 이 약은 오래 먹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팔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딱 한군데 단골인 그 약국에서만 사먹었는데 약을 먹을 때만 괜찮고 안먹으면 또 그렇고, 그렇다고 아파서 일을 못하니 안먹을 수도 없고, 생각하다가 한약을 한번 써볼까해서 찾아왔습니다” 했다.

나는 이사람이 그동안 신경통약이라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복해왔다는 사실을 짐작했다 몇년을 복용했다니 이제 부신이 거의 망가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어쨌든 치료하는데까지 해보자는 생각에 柴胡湯 + 五苓散 + 五積散을 합방해서 지어주었는데 그 환자에게 두제 정도 장복할 것을 권했고 그 환자는 과수원을 하는데 형편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인지 너무 심한 병환으로 곤욕을 치룬 끝인지 몇 제라도 먹겠으니 병만 고쳐달라고 한다 나는 우선 두제를 지어 주었다

〈5월 모일〉

대구에서 우보행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할 때였다 웬 사람이 버스안에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한다

나는 “예 별일 없습니다” 하고 전성으로 인사를 해놓고 생각해보니 누구인지 잘 몰라 하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약을 먹고 얼마나 효과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석제를 먹으라고 하신 약을 두제째 먹었을 때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오면서 얼마나 아팠으면 똥구멍을 뒤로 쳐들고 온 방을 살살이 헤맸지요, 괜히 약을 먹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병을 못고치고 죽었으면 죽었지 이렇게 아플 수가 고향을 지르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이 개운해지면서 물론 아픈데도 없고 허리와 팔 다리도 깨끗이 나아 일도 잘한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제야 그사람을 알아보았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땐 원기가 없으면서 누리탱탱한데다 푸석푸석 부어 비만했는데 이제보니 턱수염이 좀 나고 거무

스름한 얼굴이 까초름하게 바삭 말라버렸으니 전혀 단사람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스테로이드 제제의 중독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분이 치료된 것을 보면 과연 한약의 우수성에 새삼 감탄치 않을 수 없었다

〈7월 모일〉

포플러나무가 신록의 무성함을 뽐내고 매미소리가 찌렁찌렁 청량하게 메아리치는 초여름 날 오후 아주머님 한분이 들어왔다

군위에 사는데 소문을 듣고 왔으며 신약은 물론 한약도 여러제 먹어보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말로 형언하기 어렵게 이렇게 나른하고 온 전신이 아프다고 한다 보시는 것처럼 허우대도 멀쩡해서 남들은 모두 거짓이나 꺾병정도로 여기는데 남편에게 조차 아프다고 하기가 민망스러울 지경이라고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키가 크고 뼈대가 굵고 골격이 남성적이고 실체다.

내가 두제를 권했더니 군위서 과수원을 크게하고 유지인지 몇제라도 좋으니 병만 고쳐달라고 해서 궁리끝에 加味三合湯을 지어주었다

〈8월 모일〉

세월은 빠르다 벌써 8월 중순이라 매미소리가 한층 더 요란스럽다 사람들은 더위에 주눅이 들어 흐느적거릴 정도다

군위아줌마가 찾아와서 자신의 병이 다 나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반제만 더 지어달라고 했다 한제 반을 먹었을 때 이상하게 온 전신이 당기고 아프고 경련이 오고 하더니 갑자기 구토증이 나는데 검은 색의 계란 덩어리만한 것이 나오길래 마당에 뱉어 버렸는데 한참 있으니 햇볕에 쪼여 거품이 되어 사그러지더라는 것이다. 그런 후 부터는 몇년동안 앓던 나른하고 전신이 아프고 답답한 증세가 없어지고 가쁜한 기분에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토해낸 것은 담일것이고 그것이 가슴 한 복판에 막혀있었으니까 온 전신에 맥이 통하지 않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나는 순간 어떤 얘기가 떠올랐다

옛날 심한 알콜중독자가 있었는데 어떤 유명한 의원이 아무리해도 그병을 고치지 못해 가족들까지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 의원이 찾아와 장담하고 나서는데 그 의원의 치료방법이 묘하고 걸작이었다

그 의원은 알콜 중독환자를 기둥에 꿰뚫어두고 하루동안 술을 주지 않았다 환자는 미칠지경이 되어 목이 타는데 술을 달라고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다가 나중엔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을 했다. 의원은 “정 그렇다면 술을 주지”하면서 향긋하고 감칠맛

나는 향로주 한사발을 환자 코앞까지만 갖다대고 입에 대어 주지 않았다 환자는 미칠 지경이다 입과 목을 쭈욱 빨 수 있는데까지 빼고 술을 먹으려고 하면 갖다 대었던 술은 조금씩 더 멀어져 간다 애간장이 타면서 환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이 술사발을 입에 갖다 대었다 당겼다 하기를 수회할 때마다 환자는 자라목처럼 늘어졌다 들어갔다 하는데 마침내 환자는 견디지 못하고 울컥하고 토하게 되고 그 토한 물체가 술사발속에 튀어들었던 것이다 그 고깃덩이만한 물체 그것이 결국 주범으로 체내에서 술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이후 환자는 술을 보아도 먹고 싶지가 않고 병이 깨끗히 나았다는 것이다

나는 항상 이 일화를 생각만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곤 했다

〈9월 모일〉

마당엔 대추가 영글어가면서 그토록 맹위를 떨치던 더위도 이제 삼복이 지나면서 한 풀 꺾이는 듯 싶다.

미성동에 산다는 오십후반의 할머니 한분이 약방 사무실에 들어섰다

“아이구! 선생님 어찌면 좋겠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B형간염이라면서 병원에서는 약도 없으니 일도 하지말고 가만히 쉬라고 하는데 의사말대로 아무일도 않고 가만히 쉬고 있어도 점점 병이 더 심해지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열만 계속 오르기만 하니 저러다가 죽고 말 것 같아요, 생각한 끝에 우보한약방 생각이 나서 찾아 왔어요 탕약이라도 지어 낮게 해주세요” 하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이상하게 자신이 생겼고 약 석제를 권했더니 할머니가 가을 농사가 끝나면 주겠다고 의상으로 달라고 한다

나는 속으로 ‘젠장 안나으면 약값 받기는 틀렸군’ 생각하고 茵蔯五苓散 + 小柴胡湯 + 五積散을 합방해서 석제를 지어 주었더니 한보따리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과가 좋기를 빌었다. 약값이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그사람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9월 모일〉

황금물결치는 들판엔 따스한 햇살로 오곡이 영글게 익어가고 석류가 보란듯 빨갱게 이빨을 내놓고 있는 좋은 계절이다

간염 환자의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주머니에 푹푹 싸온 돈다발을 내놓으면서 “아이구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병이 다 나아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한약에도 그런 약이 있는가 합디다 이젠 건강해져서 밥도 잘 먹고 일도 잘 한답니다”

나는 예상했다는 듯이 덩덤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여인의 병이 나아서 좋고 약 석 제값 목돈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했다

<10월 모일>

제법 선들한 초가을 바람이 불고 사람들의 의복에서도 한소매에서 긴소매로 바뀌어 가는 걸 보면 계절의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빠름을 느낀다

우보면 달산동에 산다는 양심 곱게 생긴 50대 중반의 할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할아버지께서 온 전신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약 반제만 지어 달라고 했다.

나는 어혈담으로 생각하고 當歸鬚散에 托裡消毒飲을 합방해서 지어 드렸다

<10월 모일>

달산동 산다는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얼핏보아 키가 훗칠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허우대가 좋은 편이었으나 얼굴색이 검으스레하게 퇴색한 것이 병색이 완연하다

“지난번 할미에게 보내주신 약으로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음썩달썩도 못했는데 이젠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옛날 6 25동란 때 좌익으로 몰려 몰매를 맞은 것이 화근이 되어 특히 굶은 날이나 비오는 날에 전신만신이 아프곤 했지요 반제만 더 지어 주세요” 했다.

역시 같은 처방을 지어 드렸다

<10월 모일>

달산동 할머니가 나타났다 “선생님 약이 너무 좋다고 영감님께서 이번엔 아예 한제 더 지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좀 지어주실 수 있을런지요” 하면서 미안한듯 말끝을 흐렸다

나는 좋다고 쾌히 승락하면서도 속으로 그만하면 약효를 다 보았을텐데 라고 생각했으나 한제를 더 지어 드렸고 이번엔 먼저 처방에다 五積散을 합방하고 附子를 더 가미했다

약값은 운이 좋으면 받을 것이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못받겠지 생각하면서도 그 할머니의 양심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11월 모일>

대구에서 출근하기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도 약방에 도착하면 10시가 넘는다

그런데 달산동 할머니가 울상이 되어 세수대야에 비닐봉투에다 핏덩이를 담아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핏덩이가 얼마나 컸던지 어린애 태반만한게 대야에 가

득찰 정도였다

“선생님 이게 대체 뭐니까? 이 핏덩이가 그 좁은 소변구멍으로 나왔으니 어찌된 일 입니까?”

나는 깜짝 놀랐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러나 내색은 하지않고 가까스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그 핏덩이를 자세히 보았더니 시커멓게 썩은 어혈이었다. 그래서 다소 안심하고 “계속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느닷없이 물었다

“아니예요, 이젠 맑은 피가 조금씩 흐르고 있어요”하길래, “그것 보세요 쓸데없는 나쁜 어혈이 나왔으니 이젠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맑은 피가 자꾸 나와서는 안돼니까 제가 약 두첩을 지어 드릴테니 그걸 잡수시면 피가 멎을 거예요. 그런뒤에 종합병원에 가서서 확실한 진단을 받도록 하세요” 하고서 지혈제 두첩을 지어드렸다

“할아버지가 저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도 선생님 말씀대로 시원하다고 하시니 별탈은 없겠지요”하고 그 할머니는 돌아갔다

<11월 모일>

“선생님 참 용하십니다. 선생님이 지어주신 약 두첩을 자시더니 금새 피가 멎었어요. 핏덩어리를 쏟고 나니 괴롭던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병원에는 가지 않으시고 약을 더 드시겠다고 하니 지난번에 약값도 안드렸는데 또 지어달라고 하자니 면목이 없습니다”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할아버지를 달래시어 모시고 종합병원으로 가서서 진단을 확실히 받으신 후 약을 지어드려도 늦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약을 지어드리기 싫어서가 아닙니다”하고 돌려보냈다

<11월 모일>

초겨울 날씨탓인지 이젠 문도 꼭꼭 닫아야 하고 곧 나로를 피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속옷을 입었는데도 추위가 엄습하면서 몸을 경직시키기에 이러다가 감기몸살이라도 앓는게 아닌가 싶었다 달산동 할머니가 울상이 되어 나타났다

“선생님 영감님께서 병원에 가지않고 우보약만 먹겠다고 한사코 우기시는 것을 선생님 말씀대로 달래고 나무래서 큰병원엘 갔더니 방광암인데 벌써 말기라 한달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신 영감님께서서는 그래도 살고 싶은지 우보약이 좋더라고 우보약이나 지어오라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내내 우보약 우보약 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게 원을 하는데도 이 몹쓸년이 그 소원을 못풀어드리고” 하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다가 손수건으로 짙어내고선 사실 나는 약값을 포기하고 있었

는데 외상으로 지어간 약값을 내놓았다

“약값도 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약값을 갚고나니 이제 안심이 돼요” 라고 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콧등이 찡해왔다

〈1989년 5월 모일〉

우보면에서 약 5년간 한약방을 경영해오다가 대구 약령시로 이전해온지도 어느새 해가 바뀌었다.

어느날 뜻하지 않게도 달산동 할머니가 찾아왔다. 이제 오십대 후반쯤일텐데도 그리 늙어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저같은 시골 할머니가 이곳에 찾아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영감님께서 돌아가시고 마침 대구에 아들이 있는 집에 집도 봐주고 어린애도 봐주면서 지낸답니다 제가 선생님 생각이 나서 약도 한제 지어야겠고 간신히 물어 물어 찾아왔어요 약방이 이곳 한군데 뿐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웬지 선생님 약이 아니면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깐요 선생님 이제 판곳으로 이사가지 마세요 이 촌부가 이제 두번 찾기 어려울테니까요.” 홍조를 띤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달산동 할머니 말대로 약속이행을 할 수 없었다 약령시에서도 점포를 한번 더 옮겼을 뿐 아니라 이제 약령시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진 감삼동에 건물을 지어 영업을 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병은 화타편작같은 의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하늘님의 뜻에 의해 중개사 역할만을 할 뿐이라고 거듭 되새겨 본다.

(학술위원 대구 달서구 감삼동 337-3 덕인당한약방 ☎ 053-555-7500)